

의문문과 간접언어행위

박 중 갑

<목 차>

- | | |
|----------------------------|--------------------------------|
| 1. 서 론 | 3.3. 요청형의문문의 통사구조와
요청의 적절조건 |
| 2. 서술형의문문 | 3.3.1. 능력에 관한 물음 |
| 2.1. 서술형의문문의 정의와 수사
의분문 | 3.3.2. 의지에 관한 물음 |
| 2.2. 서술형의문문의 의미 | 4. 명령형의문문 |
| 3. 요청형의문문 | 4.1. 명령형의문문의 정의 |
| 3.1. 요청형의문문의 정의 | 4.2. 명령형의문문의 의미 |
| 3.2. 요청의 논리 | 5. 결 론 |

1. 서 론

언어는 인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그 1차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언어의 이러한 기능을 무시하고는 언어의 본질구명이라는 대전제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이론적인 깊이를 더해가며 여러 갈래로 발전해 가고 있는 오늘날의 언어학 이론 중에서, 어느 것이 언어의 특성에 더 깊은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국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인간언어의 본질구명에 인간언어의 기능이 무시될 수 없다는 생각이 타당성을 가진다면, 인간의 의사소통의 최소 단위는 하나의 문장도 아니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표현도 아니며, 그것은 화자가 ‘서술’, ‘의문’, ‘명령’, ‘사파’, ‘약속’…… 등을 행하는 어떤 종류의 행위(acts)를 수행(performance)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바로 언표내적 행위(illocutionary acts)라 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의미론의 중심과제로 보는 화행의미론(speech acts semantics)¹⁾은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 같기도 하다.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은 소통능

1) Searle et. al., eds (1980), vii-xii 참조. 화행의미론에 대해서는 Austin(1962), Searle(1969) 및 Rosenberg et al., eds(1971)., 참조.

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하위범주²⁾라는 주장은 기능을 중심으로 언어를 바라보았을 때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간접언어행위(indirect speech acts)란 그 표현형태(form)와 화자의 의도(intention)가 서로 다른 경우로,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이란 기능을 중심으로 언어연구를 진행할 때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간접언어행위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의문(question)은 미지의 사실에 대한 정보(information)의 결여를 나타내거나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요구하는 언어행위이다.³⁾ 따라서, 이러한 직접언어행위(direct speech acts)로서의 의문문(interrogatives)은 상대방의 선택적인 대답을 필요로 한다.

(1) 가 : 철수는 학교에 갔느냐?

나 : 예/아니오.

(2) 가 : 언니는 어디 갔느냐?

나 : 부산갔읍니다.

그런데 의문문은 주어진 화맥(context)에 따라 다른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간접언어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3) 가 : 언니는 공부했니?

(→언니도 공부하지 않았다.)

나 : 철수가 아니니?

(→철수는 아이가 아니다.)

(4) 가 : 문 좀 닫아 줄래

(→문 좀 닫아 줘.)

나 : 손 좀 잡아 줄래?

(→손 좀 잡아 줘.)

(5) 가 : 왜들 안 자고 장난이니?

(→장난치지 말고 자거라.)

나 : 넌 왜 그렇게 떠드니?

(→떠들지 마라.)

Sadock(1970, 1971)의 주장대로 하면, (3)은 그 의미가 서술이므로 *declaratives*에, (4)는 명령이므로⁴⁾ *whimperatives*에, (5)도 마찬가지로 명령이나 그 표현구조상 의문사 ‘왜(why)’가 한 특징을 이루므로 *why-imperatives*에 각각 해당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분류방법을 토대로, 간접언어행위를 구성하는 국어의문문을 ‘서술형의문문’과 ‘요청형의문문’⁵⁾ 및 ‘명령형

2) Lyons(1977), pp. 573—91에서는 D. Hymes의 소통능력이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3) 최명옥(1976), p. 146 참조.

4) 여기서 ‘명령’이라 함은 *commands*와 *requests*를 구별하지 않음을 뜻하는듯 한데, 양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본고 3.1. 참조.

5) 명령과 요청의 의미를 구분해 생각하면, *Whimperatives*는 요청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의문문'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간접언어행위의 이러한 의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SM 가설(surface meaning hypothesis)과 UM (underlying meaning)가설 및 MM(meaning-meaning) 가설 등이 그것이다.⁶⁾ 예문 (6), (7)은 둘 다 요청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6)은 통사구조의 특성에 의한 경우이므로 언제나 요청의 의미를 가지게 되나, (7)은 화맥의존적(context-dependent)이므로 상황에 따라 순수의문 및 요청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중의적인 문장이다.

(6) Can you close the door?

(7) Are you able to close the door?

UM 가설은 위 예문이 요청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과정을 두 경우 똑같이 그 심층구조(deep structure)에 'request'라는 추상적인 수행동사를 설정하여 설명하는 Heringer(1972)의 이론이며, SM 가설은 둘 다 회화상의 함의(entailment)과정으로 보는 Gordon-Lakoff(1975)의 이론이고, (6)은 UM 가설로, (7)은 SM 가설로 설명하는 MM 가설은 Sadock(1974)의 주장이다.

본고에서는 Gordon-Lakoff의 SM 가설을 기본 모델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문 (6)처럼 통사구조에 의해 요청의 의미가 생기는 경우와, (7)처럼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의 구별이 취지 않다. 다음 (3.3.1.)에 상론되지만 (8)은 언제나 요청의 의미를 전한다. 그 이유는 조동사 '주다'에

(8) ㄱ. 창문 좀 닫아 줄 수 있니?

나. 가방 좀 들어 줄 수 있니?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동일한 “—아(어) 줄 수 있니”형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청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단지 상대방의 능력을 묻는 순수의문의 경우일 수도 있다. 즉, (9), (10)의 발화상황에서 ‘나’의 발화는 요청의 의미는 아니며, 순수의문 또는 표현형식(긍정 및 부정)과 반대되는 서술의 의미이다.

(9) 가 : 난 철수한테 가 줄테야.

나 : 너 (진짜) 철수한테 가 줄 수 있니?

6) 이러한 명칭은 Sadock(1974)이 붙인 것이다. Heringer(1972)의 UM 가설은 Sadock(1974), pp. 73—95에서 계인용.

(10) 가: 난 철수를 좋아해?

나: 네 (뻔뻔스럽게도 이제 아지) 철수를 좋아해 둘 수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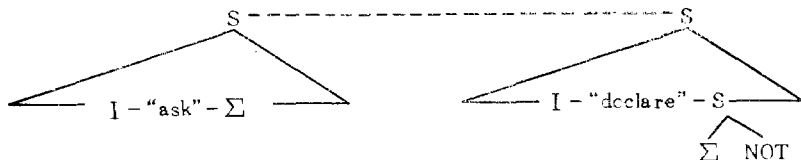
둘째, 비록 요청의 의미가 그 문장의 통사구조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국어의 토박이화자들은 (8)의 예문들이 의문문이라는 점과, 요청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의문문의 형식을 빌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의식하고 있다. 상대방의 화자 자신에 대한 상상능력(무엇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의미로 쓰이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경우는 발화행위의 관용적 표현으로서, 다른 의미로 비유되어 쓰이는 과정에서, 새로 생긴 의미가 원래의 의미를 몰아내고 재통사화(resyntacticized) 또는 재어휘화(relexicalized)된 경우일 뿐이다.⁷⁾ 영어와 국어가 요청의 의미를 전하는 과정과 방법이 다른, ⁸⁾ 양 언어의 언중이 누려온 전통이나 문화,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기인된 언어행위표현의 관습이 다르기 때문이다. (6)의 예문이 요청의 의미를 가지는데 반해, 이의 번역인 (11)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⁹⁾ 요청의 의미를 의문문으로 발화하는 것은 자신의 의도를 부드럽게 표현하기

(11) 너 창문 닫을 수 있지?

위한 회화상의 한 기술일 뿐이지, UM 가설이나 MM 가설의 경우처럼 변형(transformation)에 의한 관계일 수는 없는 것이다.

세째, Sadock(1971)은 부정형식의 서술문의 의미를 지니는 긍정형식의 서술형의문문 (12)의 심층구조를 아래그림과 같이, 문장의 형태부와 의미부가 동시에 포함된 구조로 제시하고 있다. 만일, (12)의 화자가 이를 발화할 때 화살표 오른쪽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를 가졌고, 또 그렇게 전달

(12) Is syntax easy? (→Syntax isn't easy)



7) Sadock(1974), p.97 참조.

8) 3.2.에서 자세히 언급함.

9) “—다 수 있지”형이 요청의 의미를 전할 수 없음은 3.3.1. 참조.

했다면, 여기에는 의문의 의미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윗그림의 전반부를 형성하고 있는 의문문의 형태는 변형장치에 의한 표면구조의 유도과정을 쉽게 하기 위한 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네째, Gordon-Lakoff는 이러한 과정을 회화상의 합의과정으로 보고, 요청형의문문의 의미논리구조는 의문이며, 요청으로서의 의미는 회화 가운데서 합의된 파생적인 의미로 처리하여, 그러한 과정을 성실조건(sincerity conditions)과 화화공리(conversational postulates) 및 적절조건(felicity conditions)으로 처리하고 있는데,¹⁰⁾ 간접언어행위의 본질을 밝히는 데 타당한 이론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간접언어행위에서 가지는 의문문의 여러 가지 언표내적 효과와 그러한 과정을 회화공리 및 적절조건으로써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서술형의문문

2.1. 서술형의문문의 정의와 수사의문문

Sadock(1971)은 예문(12)와 같이, 형태는 의문문이나, 문장의 표현형식(긍정과 부정)과 반대되는 서술문의 의미와 통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를 *queclaratives*라 일컫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서술형의문문으로 부르하고자 한다.¹¹⁾ 그런데, 수사의문문(rhetorical questions)도 형태는 의문문이나, 의미는 문장의 표현형식과 반대되는 서술문의 의미일 수도 있으므로, 양자의 구별이 모호해진다. 수사의문문은 보통, 화자의 강력한 진술(forceful statement)이나 감탄(exclamation)으로 해석되는 의문문을 가리키게 되어,¹²⁾ 서술형의문문보다 좀 더 포괄적이다. (13)의 경우는 수사의문문과 동시에 서술형의문문으로 양자의 차이가 없으나, (14)의 경우는 수사의문문 속에는 포함되나 서술형의문문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이유는 그것이 감탄의 의미이기 때문이다.¹³⁾

(13) ㄱ. 철수가 언제 왔니? (→철수는 오지 않았다.)

10) 자세한 것은 Gordon-Lakoff(1975) 및 본고 3.2. 참조.

11)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것은 문장(sentence)이 아니고 발화(utterance)이다. 의문문이 명령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은 문장의 의미를 떠난 발화의 단계이기 때문이다.

12) 수사의 문문의 정의에 대해서는 고영근(1976), p.23 및 이현규(1978), p.300 참조.

13) 본고에서는 감탄법을 독립된 문체법으로 설정하는 고영근(1976)의 견해를 따른다.

ㄴ. 내가 영화보러 안 갔니? (→나는 영화보러 왔다.)

(14) ㄱ. 너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니? (→너가 여기까지 온 사실이 감탄스럽다.)

ㄴ. 금강산이 정말로 아름다울 수가 있니?

(→금강산의 아름다움이 감탄스럽다.)

수사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의문문, 즉 설의법의 경우도 수사의문문의 범주 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는 감탄 또는 반대진술의 의미가 아닐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순수의문문도 아니다. 이는 독자나 청중에게, 반문하는 형식을 빌어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등의 수사법적인 기교에 해당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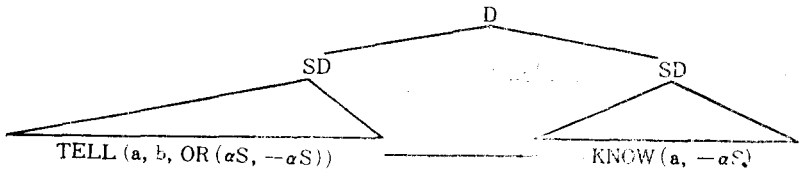
(15) ㄱ.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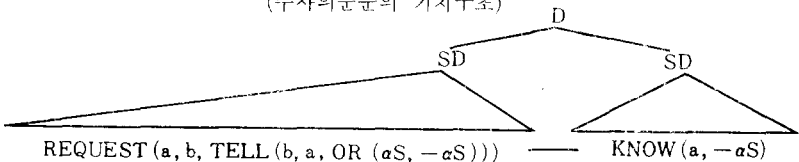
다. 결국 수사문의 범주 속에는, 간접언어행위를 이루는 의문문 가운데서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의 수행을 요구하는 요청형의문문과 명령형의문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서술형의문문은 수사의문의 반어적 용법에 해당되는 것이다.¹⁴⁾

2.2. 서술형의문문의 의미

Chang(1973)은 수사의문문과 서술형의문문을 구별하여, 수사의문문은 반대진술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데 반해, 서술형의문문은 이러한 반대진술의 의미와 의문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양



(수사의문문의 기지구조)



(의문형 서술문의 기지구조)

14) 수사의문문의 용법에 대해서는 박종갑(1982) 참조.

(17)의 경우에는, 동생은 ㄴ의 발화를 통해 자신은 입을 옷이 없다는 사실을 언니에게 알리는 경우이다. 즉, 상대방이 모르는 사실(동생이 입을 옷이 없다는 것)을 알려 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이나 행동에 변화를 주려는 의도이다. 이미 완료된 일에서는 어떤 변화를 구할 수 없으므로, (17) ㄴ의 서술어의 시제를 과거로 바꾸면 부정적용법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사실은 비부정적용법의 이러한 알림의 의미에 대한 좋은 증거가 될 것이다. 물론, (17) 또한 순수의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순수의문과 수사의문은

(17)' ㄴ. 그럼 난 뭐 입었니? (→나도 입지 않았다)

그 각각의 의미가 해석될 수 있는 상황, 즉 적절조건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화자는 상황에 따라 순수의문의 의도를 가질 수도 있고, 수사의문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둘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서술형의문문의 언표내적 효력이 수사의문의 반어적 용법의 그것과 동일하게 '부정'과 '알림'임을 밝히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를 끝맺는다.¹⁶⁾

3. 요청형의문문

3.1. 요청형의문문의 정의

Sadock(1974)은 예문 (18)~(20)과 같이, 의문문의 형태로서 명령의 의미를 전하는 문장을 Whimperative라 칭하고 있다.

- (18) Will you close the door please?
- (19) Can you lend me a dime please?
- (20) Wan't you have a seat please?

국어의 경우, 양인석(1976)의 예문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명령의 의미이니만큼 주어는 반드시 2인칭이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생략될 수 있다.

- (21) 이리 (좀) 올래?
- (22) 이리 오실래요?
- (23) 거짓말 (좀) 하지 말래?
- (24) 거짓말 (좀) 하지 마실래요?

16) 의문형서술문의 동사특성과 적절조건 및 회화공리에 대해서는 박종갑(1982), pp. 29-30, 41-43 참조.

명령(commands)과 요청(requests)을 구분해서 생각하면, 이들 문장들은 명령이라기보다 오히려 요청의 의미이다. 명령과 요청은 둘다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명령은 그러한 행동의 수행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화자가 쥐고 있는 경우이고, 요청은 그러한 결정권을 청자에게 넘겨주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¹⁷⁾ 아래 예문에서 (25)는 명령이고, (26)은 요청인데, 의문문의 형태는 청자에게 결정권을 이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25) ㄱ.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
 나. 손을 대지 마세요.
 다. 손 좀 잡아 주십시오.
- (26) ㄱ. 모두 집으로 돌아 가실래요?
 나. 손 좀 대지 마실래요?
 다. 손 좀 잡아 주실래요?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의문문의 형식을 빌어 요청의 의미를 전하는 경우에, 이를 요청형의문문이라고 일컫고자 한다.¹⁸⁾

3.2. 요청의 논리

요청은 화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의 수행을 요구하는 언어행위이다. 그러므로 화자는 청자가 그러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어야 하며, 화자 자신이 청자의 그러한 수행을 바라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화자의 그러한 심적태도가 표면화되지 않는다면, 청자는 화자가 무엇을 요청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순수의문을 발화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므로 요청의 의미가 전달될 수 없다.¹⁹⁾ 따라서, 요청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요청의 성립요건)

- 가. 화자는 청자에게 자신이 요청할 행동의 수행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
 나. 화자는 청자가 그러한 행동을 수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다. 화자는 자신의 그러한 심적태도를 표면화시키야 한다.

17) Lyons(1977), pp.745—53 참조.

18) 주 11) 참조.

19) 이러한 표면화는 반드시 등사구조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소리의 높낮이나 강세, 길이 등의 운율적 자질(prosodic feature)이나 표정, 억양, 몸짓 등의 부차언어적 자질(paralinguistic feature)로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요청된 행동의 수행어부에 대한 결정권은 청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논리는 순수 자연논리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어시제의 경우, 과거, 현재, 미래라는 자연시의 구별은 시제 형태소와 일치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요청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조건을 반드시 구비하지 않아도 요청의 의미가 전달될 수도 있다. 여기에는 화·청자가 처한 상황, 즉 언어외적 요인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의 경우에는, 화자가 어떤 행동이 청자에 의해 수행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밝히거나, 그러한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수행능력이나, 의지 또는 의사를 물음으로써, 요청의 의미를 전하는 과정을, Gordon-Lakoff는 다음과 같은 회화공리로 밝히고 있으며,²⁰⁾ 이에 해당되는 예문으로 (27)을 제시하고 있다.

(요청의 회화공리)

I. SAY(a, b, WANT[a, Q])^o → REQUEST(a, b, Q)

II. ASK(a, b, CAN[b, Q])^o → REQUEST(a, b, Q)

III. ASK(a, b, WILLING[b, Q])^o → REQUEST(a, b, Q)

IV. ASK(a, b, Q) → REQUEST(a, b, Q)

※ Q: FUT (Do (b, R)): b will do act R

a: 화자, b: 청자

^o 표시는 통사적인 의미나 함의된 의미 가운데서 하나만 가짐을 뜻한다.

(27) ㄱ. I want you_i to take out the garbage.

ㄴ. Can you take out the garbage?

ㄷ. Would you be willing to take out the garbage?

ㄹ. Will you take out the garbage?

본고에서는 요청형의 문문이 논제이므로, 회화공리 I은 논의로 된다. 그런데 국어의 경우에는 회화공리 II, III, IV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Lee (1978)에서는 국어는 영어와는 달리, 상대방의 능력이나 의지를 묻는 물음은 요청의 의미를 가질 수 없음을 밝히어, 위 Gordon-Lakoff의 회화공리에 대한 보편성의 한계를 논하고 있다.²¹⁾ 그는 ‘주다’라는 조동사나 부사 ‘좀’이 포함된 문장(예문 (28), (29))은 요청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단순히 상대방의 능력이나 의지를 묻는 (30), (31)은 그럴 수 없는데, 이는 ‘주다’와 ‘좀’이 공손(politeness)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20) Gordon-Lakoff(1975), p. 86 참조.

21) 예문도 Lee(1978)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그는 요청의 의미가 함의되는 때는 ‘공손’이 절대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좀’과 ‘주다’가 둘 다 포함된 문장 (28)의 ㄷ과 (29)의 ㄷ은 더욱 공손한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 (28) ㄱ. 쓰레기를 버려 줄 수 있느냐?
 ㄴ. 쓰레기를 좀 버릴 수 있느냐?
 ㄷ. 쓰레기를 좀 버려 줄 수 있느냐?
- (29) ㄱ. 지금 쓰레기를 버려 주겠느냐?
 ㄴ. 지금 쓰레기를 좀 버리겠느냐?
 ㄷ. 지금 쓰레기를 좀 버려 주겠느냐?
- (30)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느냐?
 (31) 쓰레기를 버리겠느냐?

국어 요청형의문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항에서 다루어진다. 국어와 영어가 이렇게 다른 양 언어의 언어논리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는 언어내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관습적인 문제로, 양 언어의 언중이 누려 온 문화나 사고방식, 그리고 관습 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영어에서는 위 회화공리 Ⅱ, Ⅲ, Ⅳ에 해당되는 예문 (27)도 요청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비해, 국어의 (30), (31)은 그럴 수 없음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좋은 증거가 된다는 점만 언급한다.

3.3. 요청형의문문의 통사구조와 요청의 적절조건

앞(3.2.)에서도 보았듯이, 모든 의문문이 다 요청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문문이 요청의 의미를 가지는 때는 문장의 통사구조가 기능할 수도 있고, 화맥의존적(context-dependent)일 수도 있으며, 양자가 동시에 관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요청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통사구조상의 특성과 적절조건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상, 상대방의 능력을 묻는 경우와 의지를 묻는 경우로 대별해서 고찰하고, 종결어미는 주로 ‘해라’체에 한한다.

3.3.1. 능력에 관한 물음

- (32) ㄱ. 너 이번 방학 때 내 일 거들 수 있니?
 ㄴ. 너 내일 부산에 갈 수 있니?
 ㄷ. 너 내일 내한테 전화 걸 수 있니?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러한 물음은,

영어와는 달리 국어에서는 요청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한다.²²⁾ 앞에서 요청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지만, (32)에는 화자가 그러한 행동이 수행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심적태도가 표면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유형상,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의 수행능력을 묻는다는 것은 곧 그러한 행동의 수행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며, 만일 그렇다면 이 경우도 상대방에게 요청의 의미를 전달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순수히 언어외적인 문제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32) ㄷ의 물음을 헤어지는 친구한테 했다면, 요청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서너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했다면, 이는 요청의 의미가 아니다. 상대방의 능력을 묻는 순수의문의 기능을 가질 뿐이기 때문이다.

(33) ㄱ. 니 이 문제 풀 수 있니?

ㄴ. 니 해엄쳐서 강건너까지 갈 수 있니?

ㄷ. 니 신문 읽을 수 있니?

앞의 예문 (32)와는 달리, (33)에는 비록 상대방의 능력을 묻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행동의 수행을 화자가 바라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는 단지 상대방의 능력을 묻는 순수의문이지, 결코 요청의 의미로 볼 수는 없다. 이상의 논의로써,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의 수행능력을 묻는다는 것은 요청의 언표내적 효력을 가질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연합적 행위(perlocutionary acts)를 구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동사 ‘주다’가 포함된 경우, 즉 “—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묻는 경우에는 분명히 요청의 의미를 지닌다. 요청의 의미를 가질 수 없었던 (33)에 ‘주다’를 넣어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앞(3.2.)에서, 의문문이 요청의 의미를 가지는 과정에서, 조동사 ‘주다’가 매우 뛰어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그것이 공손함을

(34) ㄱ. 너 이 문제 풀어 줄 수 있니?

ㄴ. 너 해엄쳐서 강건너까지 가 줄 수 있니?

ㄷ. 너 신문 읽어 줄 수 있니?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Lee의 견해를 소개한 바 있다. 확실히, (34)는 요청의 의미를 분명히 지닌다. 그러나 이는 공손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보통 조동사 ‘주다’를 봉사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는

22) Lee(1978), pp. 160—61 참조.

데,²³⁾ 아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을 시켜해 준다”는 의식을 화자가 가지고 있을 때 사용되는 듯하다.

(35) ㄱ. 내가 아기에게 옷을 입혔다.

ㄴ. 내가 아기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

화자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봉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묻는다는 것은 화자 자신이 그 무엇이 수행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즉, 조동사 ‘주다’는 ‘공손’의 표시가 아니다, 상대방의 그러한 행동의 수행에 따른 혜택이 화자 자신에게 돌아옴을 나타냄으로써, 화자가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사실,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공손과 불손의 문제는 억양이나 몸짓, 표정 등의 부차언어적 자질(paralinguistic feature)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37)이 말화되었을 때, 공손의 문제는 조동사 ‘주다’의 유무에 의한다기보다, 오히려 방금 언급한 언어외적 요인에 기인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주다’가 공손의 표시가 아님은 쉽게 이해될 줄 안다.

(37) ㄱ. 모두 밖으로 나가세요.

ㄴ. 모두 밖으로 나가 주세요.

이상의 논의로써, 상대방에게, 무엇을 봉사해 줄 수 있는 상대방의 능력을 묻는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그러한 행동이 수행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나타내며, 자신의 바램을 표면화시킨다는 것은 곧 그 바램을 상대방이 충족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요청의 의미로 이해하고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제, (33)의 예문에 부사 ‘좀’을 넣어보면, 마찬가지로 요청의 의미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38) ㄱ. 너 이 문제 좀 풀 수 있니?

ㄴ. 너 해엄쳐서 강 건너까지 좀 갈 수 있니?

ㄷ. 너 신문 좀 읽을 수 있니?

이는 부사 ‘좀’도 역시 공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 준다. 어머니가 놓고 있는 아들에게 한 다음 (39)의 말화에서 ‘좀’이 공손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이것은 화자 자신의 심적태도—어떤 행동이 청자에 의해 수행되기를 바라는 마음—를 표면화하는 것이며, 이

23) 최현배(1955), pp. 391—92 참조.

- (39) ㄱ. 공부 좀 해라.
 ㄴ. 일 좀 해라.
 ㄷ. 제발 공부 좀 해라.

러한 까닭으로 (38)이 요청의 의미로 쓰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좀’과 ‘주다’가 동시에 포함된 (40)은 더욱 더 뚜렷한 요청의 의미를 지닌다. 즉, 간청의 정도(degree of plea)가 앞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

- (40) ㄱ. 너 이 문제 좀 풀어 줄 수 있니?
 ㄴ. 너 해엄쳐서 강 건너까지 좀 가 줄 수 있니?
 ㄷ. 너 신문 좀 읽어 줄 수 있니?

3.3.2. 의지에 관한 물음

앞(3.2.)에서 영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지에 대한 물음은 요청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었다. Lee 는, 앞에 든 논문에서, “—겠느냐”, “—겠습니까”형을 상대방의 의지에 대한 물음으로 보고, 이러한 경우는 요청의 의미를 가질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르래”형도 의지를 묻는 물음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3.3.2.1. “—르래”형

“—르래”형 종결어미를 가진 의문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통사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²⁵⁾ 따라서 이를 어긴 (42)는 전부 비문이다.

- 가. “—르래”에 선행하는 서술어의 주어는 2인칭이어야 한다(의미상의 2인칭도 가능함).
 나. 체언서술어와는 공기할 수 없다.
 다. 서술어는 반드시 동사라야 한다.
- (42) ㄱ. * 그 사람이 갈래?
 ㄴ. * 니가 학생일래?
 ㄷ. * 니가 좋올래?

“—르래”의 이러한 통사상의 특성은 요청의 의미를 가지는데 매우 큰 기능

24) 최명옥(1976)에서는 서남경 남방언의 의문문 종결어미로서의 ‘—르래’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를 ‘의지’를 묻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인석(1976)은 ‘—르래’를 의향의문으로 처리하고 있다.

25) 최명옥(1976), pp. 157—58에서 인용. 예문도 그대로 옮긴다.

을 하고 있다. 사실, 이 유형의 의문문이 국어 요청형의문문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것도 이러한 특징을 환기해 보면 매우 당연하게 생각된다. 요청은 요구(demands)와는 달리 요청된 행동의 수행이 청자에게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²⁶⁾ “—크레”에 선행하는 서술어의 주어가 반드시 2인칭이어야 한다는 제약은 요청의 이러한 조건과 꼭 들어맞는다. 뿐만 아니라, 체언서술어와 공기할 수 없고, 그리고 서술어는 반드시 동사라야 한다는 제약도 요청은 어떤 행동의 수행을 원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화자 자신의 심적태도를 표면화하는 ‘좁’이나 ‘주다’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요청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힘들다. 이 요청의 의미를 가지는 듯한 점도, 언어외적인 문제로서, 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의지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바라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43) ㄱ. 너 이 옷 빨래?

ㄴ. 함께 갈래요?

때문이다. 이 “—크레”형이 위협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지적은²⁷⁾ (43)에서 발생한 요청의 의미가 동사구조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4) ㄱ. 너 죽을래?

ㄴ. 너 까불래?

그런데, 이 유형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조동사 ‘주다’나 ‘좁’이 포함되면, 명백히 요청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45)에는 이 ‘주

(45) ㄱ. 니 창문 일이 줄래?

ㄴ. 책 읽이 줄래.

(46) ㄱ. 너 창문 좁 인래?

ㄴ. 책 좁 읽을래?

다’가 포함됨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수행(창문을 여는 것, 책을 읽는 것)으로 인한 혜택이 화자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 (46)에서는 ‘좁’이 포함됨으로써 화자 자신이 그러한 사실이 수행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 표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다’와 ‘좁’의 이러한 구별의 타당성은 다음의 예문으로도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47)에서는 요청된 행동이 수행된다면,

26) Lyons(1977), p. 751 참조.

27) 양인석(1976), p. 135 참조.

- (47) ㄱ. 숙제 해 줘.
 ㄴ. 머리 깎아 줘.
 (48) ㄱ. 숙제 좀 해.
 ㄴ. 머리 좀 깎아.

화자의 숙제를, 또는 머리를 청자가 해 주거나 깎아 주는 경우이고, (48)은 청자가 스스로 하는 경우이므로, (47)에서는 청자가 화자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고, (48)에서는 화자는 단지 청자의 행동수행을 바라고 있을 따름이지, 무슨 도움이 오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양자가 함께 포함된 경우는 더욱 요청의 의미가 뚜렷하고 간청의 정도가 높으며, “—줄 수 있니”형보다는 상대방의 의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직접적이다.

- (49) ㄱ. 다리 좀 주물러 줄래?
 ㄴ. 일 좀 거들어 줄래.
 ㄷ. 내일 학교 좀 와 줄래?

3.3.2.2. “—겠니”형

형태소 ‘겠’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추측’이나 ‘의지’ 등으로 논의되고 있고, 또 앞에 든 Lee의 논문에서도 “—겠느냐”형의 의문문을 상대방의 의지를 묻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겠’의 의미에 대한 상론은 피하나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면, 주어가 1 인칭일 때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 같지 않은데, (51)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의 능력을 묻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50) ㄱ. 나는 집으로 가겠다.
 ㄴ. 나는 돈을 벌겠다.
 (51) ㄱ. 선생님: 너 이 문제 풀겠어?
 학 생: 네. 풀겠어요.
 ㄴ. 너 내의도 없이 이 추위를 견디겠니?
 ㄷ. 신발도 신지 않고 어떻게 집에까지 가겠니?

이러한 사실로 미뤄 보면, “—겠니”형 의문문은 상대방의 의지를 묻는 의문으로 취급하기가 곤란한 것 같다. 하여간 이러한 경우에는 요청의 의미를 가질 수 없음이 확실하다. 그런데도 이것을 의지에 관한 물음으로 다루는 이유는 조동사 ‘주다’가 포함되면, 언제나 상대방의 의지 또는 의향을 묻게

되기 때문이다. (52)가 요청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은 분명한데, 여기에서도 이 ‘주다’가 앞(3.3.2.1.)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52) ㄱ. 너 이 문제 풀어 주겠니?

ㄴ. 너 방 치워 주겠니?

ㄷ. 우유 하나 사 주겠느냐?

마찬가지 이유로, ‘좀’이 수반되어도 요청의 의미를 가지며, 양자가 다 포함되면 더욱 더 의미가 뚜렷해진다. 그리고 ‘간청의 정도’도 높아진다.

(53) ㄱ. 쓰레기 좀 치우겠니?

ㄴ. 심부름 좀 하겠니?

ㄷ. 1층까지 좀 내려 갔다 와 주겠니?

ㄹ. 눈을 좀 감아 줄 수 있겠니?

지금까지, 국어 요청형의문문의 유형을 “능력에 관한 물음”과 “의지에 관한 물음”으로 나누어, 요청의 의미가 생기는 데 있어, 부사 ‘좀’이나 조동사 ‘주다’가 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이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요청’의 비표현적 효력이 생길 수 있는 과정에서 가지는 각 요소의 기능과 적절조건 및 회화공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 요소의 기능)

의문문의 형태 : 요청된 행동의 수행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청자에게 넘겨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능.

조동사 ‘주다’ : 화자 자신에게 해 줄 수 있는 상대방의 봉사능력을 불음으로써, 언급된 행동의 수행에 따른 혜택이 화자에게 돌아옴을 나타내는 기능→그리한 행동의 수행을 화자 자신이 마라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능.

부사 ‘좀’ : 언급된 행동이 수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화자의 심적태도를 표현하는 기능.

(회화 공리)

가. 화자 자신에 봉사해 줄 수 있는 상대방의 능력에 관한 물음.

→상대방에 어떤 행동의 수행을 요청함.

나. 화자 자신에게 봉사해 줄 수 있는 상대방의 의지에 관한 물음.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의 수행을 요청함.

(적절 조건)

- 가. 화자는 청자가 요청된 행동의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나. 화자는 자신이 요청할 행동이 상대방에 의해서 수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 화자는 상대방이 스스로 그러한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라. 그러한 일은 현재 또는 미래의 일이다.

4. 명령형의 문문

4.1. 명령형의 문문의 정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adock은 (54)와 같이 명령의 의미를 가진 의문문을 *whyimperatives*라 하고 있다.²⁸⁾ 편의상 (5)의 예문을 다시 인용한다. 이 경우도 서술형의 문문과 마찬가지로, 화살표 양쪽은 긍정과 부정의 형식이 반대다. 그리고, 의미가 명령이므로, 의문형어미에 선행하는 서술어는 동작동시라야 하며, 시제는 현재 또는 미래여야 하고, 문법적인 주어 또는 의미상의 주어는 2인칭이어야 한다. 따라서 (55)의 예문은 명령의 의미를 전할 수 없다.

- (54) ㄱ. 왜들 안자고 장난이니? (→장난치지 말고 자거라)
 ㄴ. 넌 왜 그렇게 떠드니? (→떠들지 마라.)
 (55) ㄱ. 왜 그렇게 못생겼니? (서술어: 상태동사)
 ㄴ. 넌 왜 이젯밤에 안잤니? (시제: 과거)
 ㄷ. 할아버진 왜 늘 간섭만 하시는지 모르겠어? (주어: 3인칭)

그런데, *whyimperatives*에 해당되지 않는 (56)의 의문문도 명령의 의미를 전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제약조건을 지켜야 한다.

- (56) ㄱ. 넌 언제 가려고 놀고 있니? (→놀지 말고 빨리 가라.)
 ㄴ. 넌 어디 가려고 그렇게 설치니? (→설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ㄷ. 달력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하니? (→달력만 보고 있지 말고 다른 일을 해라.)
 ㄹ. 너는 어찌 누워만 있니? (→누워만 있지 말고 활동을 하라)

본고에서는 *whyimperatives* 뿐만 아니라, (56)의 예문과 같이, 의문문의 형태로서 명령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을 전부 통틀어서 ‘명령형의 문문’으로 일컫고자 한다.²⁹⁾

28) Sadock(1970) 참조.

29) 주 11) 참조.

4.2. 명령형의문문의 의미

Chang 은 whyimperatives 를 queclaratives 의 한 유형으로 보고, (57)의 기저구조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³⁰⁾

(57) 왜 안 자니 ?

—Tell me the reason why you don't sleep I know there is no reason why you don't sleep. —

그러나, 이 경우 또한 queclaratives 와 마찬가지로 의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각각의 언표내적 효력이 생기는 적절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의문과 명령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의문문을 발화함으로써 명령의 의미는 새롭게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상대방에게 그 이유를 물음으로써 명령의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57)을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놀고 있는 아들에게 한 발화하라고 가정할 때, 이는 순수의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화자의 의도는, 순수의문이든 명령이든 간에, 발화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두 의미가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앞(4.1.)에서 본 바와 같이, 의문문으로써 명령의 의미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가능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whyimperatives 를 중심으로 명령형의문문의 회화공리 및 적절조건을 정리해 본다.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는 모두 이에 준할 수 있을 것이다.

(회화공리)

- 가. 어떤 행동을 수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물음→그러한 행동을 수행하라는 명령
나. 어떤 행동을 수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물음→그러한 행동을 수행하지 말라는 명령

(적절조건)

- 가. 화자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야되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 상대방은 현재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거나 하고 있다.
다. 화자는 상대방이 스스로 그러한 일을 하거나 중단하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라. 그러한 행동의 수행은 현재 또는 미래의 일이다.

30) Chang(1973), pp.122—23 참조.

5. 결 론

본고는 의문문이 간접언어행위를 이루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를 Gordon-Lakoff의 회화공리 이론에 따라, 회화상의 함의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고, 회화공리와 적절조건을 밝힘으로써, 이를 체계화하고자 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5.1 서술형의문문

- 가. 서술형의문문은 의문문으로서 서술문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며, 영어의 *declaratives*에 해당된다.
- 나. 서술형의문문은 수사의문문의 반어적용법과 같은 것으로서 그 언표내적 효력은, 경우에 따라 ‘알림’과 ‘부정’으로 나타난다.
- 다. 서술형의문문에는 ‘의문’과 ‘서술문’의 의미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적절조건에 따라 의문문이 서술문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5.2. 요청형의문문

- 가. 요청형의문문은 의문문이 ‘요청’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 해당된다.
- 나. 국어의 경우는, 영어와는 달리, 조동사 ‘주다’나 부사 ‘좀’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는 양 언어의 언중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관습이 다르기 때문이다.
- 다. 요청문의 각 요소가 행하는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ㄱ. 의문문형태 : 요청된 행동의 수행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넘겨 줌을 뜻함.
 - ㄴ. 조동사 ‘주다’ : 화자에게 봉사해 줄 수 있는 상대방의 능력을 물음으로써, 언급된 행동의 수행에 따른 혜택이 화자에게 돌아옴을 나타냄. → 그러한 행동의 수행을 바라고 있는 화자의 심적태도를 나타냄.
 - ㄷ. 부사 ‘좀’ : 언급된 행동이 수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화자의 심적태도를 나타냄.
- 라. 봉사능력에 관한 물음보다는 의지에 관한 물음이 보다 직접적이므로, 요청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간청의 정도가 높다.
- 마. 조동사 ‘주다’와 부사 ‘좀’이 함께 수반되면, 간청의 정도가 더욱 높아진다.

5.3. 명령형의문문

- 가. 명령형의문문은 의문문이 명령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 해당된다.
- 나. 요청형의문문과도 마찬가지로, 주어는 반드시 2인칭이어야 하며, 의문형어미에 선행하는 서술어는 반드시 동작동사이고, 시제는 현재 또는 미래여야 한다.
- 다. **whyimperatives** 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형의 의문문도 위와 같은 제약조건을 지킨다면 명령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참 고 논 제

- 고영근(1976). “현대국어의 문체법에 대한 연구: 서법체제(속)”. 어학연구, 12—1.
서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김종태(1983). “형태소 「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산: 영남대학교 대학원.
- 김종택(1982). 국어화용론. 대구: 형설출판사.
- 박종갑(1982). “의창지역어의 수사적문문에 관한 연구: 의미 화용론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산: 영남대학교 대학원.
- 양인석(1976). “한국어 양상의 화용론(Ⅰ): 제안문과 명령문”. 언어, 1—1. 서울: 한국언어학회.
- 이현규(1978). “국어물음법의 변천”. 한글, 제 162 호, 서울: 한글학회.
- 최명옥(1976). “현대국어의 의문법 연구: 서남 경남 방언을 중심으로”. 학술원 논문집(인문·사회), 15. 서울: 대한민국 학술원.
- 최현배(1955). 우리말론. 길고 고친판. 서울: 정음사.
- Austin, J.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London: Clarendon Press.
- Chang, S. J. (1973). *A Generative study of discourse*. Supplement to Language Research, 9—2.
- Gordon, David, and George Lakoff(1975). “Conversational Postulates.” In *Syntax and Semantics*, vol. 3. Ed. Peter Cole, and Jerry L. Morgan. New York: Academic Press.
- Lee IK-Hwan(1978). “Some Aspects of Indirect Speech Acts in Korean”. In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Ed. Chin-W. Kim. Columbia: HORNBEAM Press.
- Lyons, Jhon(1977). *Semantics*, vol. 2.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Rosenberg, J. F. and Charles Travis(1971), eds.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Sadock, J. M. (1970). “Whimperatives.” In *Studies presented to Robert B. Lees by his students*. Ed. J. M. Sadock and Anthony L. Vanek. Edmonton, Canada: Linguistic Research.
- _____ (1971). “Queclaratives.” *CLS* 7.
- _____ (1974). *Toward a Linguistic Theory of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 Searle, J. R. (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_____, Ferenc Kiefer, and Manfred Bierwisch(1980), eds. *Speech Act Theory and Pragmatics*.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